**문학적 표현법(수사법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비유법 | 직유법 | 원관념(A)을 보조관념(B)과 ‘비슷하다’고 직접적으로 비유 | 무지개 같은 선생님 |
| 은유법 | 원관념을 보조관념과 ‘동일하다’고 암시적으로 비유함. 예를 들어, “내 마음은 호수요”라고 하면, 내 마음과 호수가 어떤 관계인지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남 |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|
| 의인법 |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함. | 슬퍼하는 새 |
| 활유법 |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함 | 달리는 강물 |
| 대유법 | 제유법: 대상의 일부(또는 속성)로 전체를 표현함 | 머리부터 발끝까지  = (사람 전체) |
| 환유법: 논리적, 공간적으로 가까운 단어로 비유함 은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음 | 백의의 천사 = (간호사) |
| 기타 | 의태어와 의성어의 사용 중의적 표현: 한 문장으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표현  상징적 표현\*: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 | |
| 변화법 | 도치법 | 어순을 바꾸어 문장에 변화를 줌 | 불 좀 꺼 줄래? 내 램 좀 보게. |
| 인용법 | 남의 말을 끌어다 씀. 인용부호가 사용됨. | 옛말에 “~”라고 했다. |
| 설의법 | 의문을 표하는 형태로, 사실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음. 쉽게 말하면 답정너. | ~가 아닌가? |
| 대구법 | 구조적으로 비슷한 두 문장을 짝지어 놓음 | 콜라 싫어, 우유 좋아 |
| 반어법 | 실제로 하려는 말과는 정반대로 말함. 속이 보여야 한다는 게 중요함. | 참 잘~하는 짓이다 |
| 문답법 |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표현함 | 어디야? 집이야. |
| 생략법 |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여 여운을 남김 | 할부도 안 끝났는데… |
| 기타 | 비약법, 경구법, 거례법, 돈강법 (알 필요 없음) 대위법(정지용 <창문>에만 나옴) | |
| 돈호법: 누구를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킴. | 야, 카이사! |
| 강조법 | 과장법 | 사실을 훨씬 극대화시키거나 축소하여 말함. | 쥐꼬리만 한 월급 |
| 영탄법 | 감정을 고조시킴. ‘영탄적 어조’라고도 함. | 아아! 수령님이시여! |
| 반복법 | 같거나 비슷한 말을 반복함. ‘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’이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함 |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|
| 점층법 점강법 | 점점 표현이 높거나 크거나 고조됨. 반대로 표현이 점점 사그라듦 | 그립다, 너무 그립다, 진짜 너무 그립다 |
| 대조법 |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를 놓고 대조함 | 키다리와 난쟁이 |
| 비교법 |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을 놓고 비교함 | 밥보다 좋은 스윙칩 |
| 열거법 | 관련된 사물이나 개념을 쭉 나열함 | 대구 명태 거북이 |
| 연쇄법 | 문장이 앞뒤로 꼬리를 물고 이어짐 |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|
| 기타 | 미화법, 억양법 (알 필요까지는 없음)  현재형 어미의 사용: 조금 더 현장감이 생김.  명령법, 단호한 어조: 조금 더 단호해짐 | |

**일제강점기 초~중반 문학사조 (이거 뒤에는 순수시, 모더니즘, 청록파, 저항시 나옴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낭만주의 | 자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문학의 골자로 삼음. (주로 시)  간접적으로, 상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‘상징주의’라고 함 | | |
| 병적 낭만주의 | 민요적 서정주의 | |
| 퇴폐적이고 병적인 세계관과 가상 세계 설정. 암울한 현실에서 발버둥치면서도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한 흔적이 드러나 있음. | 전통적인 민요의 율격을 되살려 감정을 묘사하는 시를 창작.  이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은 김소월. 그의 대표작은 <진달래꽃> 등 | |
| 만해 한용운 | 여성적인 어조, 불교적인 내용, 저항시(민족주의)  ‘님’ -> 연인 / 부처 / 광복 3가지로 해석 가능  시에 산문적인 율격을 적용하는 특징. | | <님의 침묵>, <알 수 없어요>, <나룻배와 행인> 등 |
| 리얼리즘 (사실주의) | 내면의 감정보다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서술 (주로 소설) | | |
| 현진건 | 염상섭 | |
| 오늘날 보는 것과 똑같은, 근대적인 문장 최초 도입  리얼리즘을 처음으로 소개  대표작은 <운수 좋은 날>,  <무영탑>, <술 권하는 사회> 등 | 세밀한 시대 묘사로 리얼리즘 문학의 최고봉에 오름 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고뇌를 담아냄  대표작은 <삼대>, <만세전> 등 | |
| 김동인 | 아주 다양한 경향성이 작품에 드러나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음  대표작은 <발가락이 닮았다> 등 | | |
| 경향문학 -> 프로 문학 | 사회주의 기반, 카프(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연맹)의 주도로 창작됨 전문적인 비평 도입, 리얼리즘 문학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권위 향상에 목적  문학을 정치 선전 용도로 사용한 결과 예술성을 상실했다는 비판 | | |

**Nguyen Tran**

Don’t come to Korea Univ, go to Sul Ka Po

Yonsei? Ni zzodero hera

**감각적 심상(이미지)**

|  |  |
| --- | --- |
| 시각적 심상 | 눈으로 보이는 것. 색깔, 빛, 모양 등. ‘밤’은 어둡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각적 심상이 될 수 있음 |
| 청각적 심상 | 귀로 들리는 것. 소리. |
| 후각적 심상 | 코로 맡을 수 있는 것. 냄새, 향기 |
| 촉각적 심상 | 피부로 느껴지는 것. 질감, 감촉, 온도, 형태(뾰족함, 날카로움…) 특히 ‘차갑다’는 것이 자주 나오는 촉각적 심상 |
| 미각적 심상 |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. 맛. |
| **공감각적 심상** | 한 가지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함.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…  푸른 종소리(청각의 시각화) =>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심상은 청각이지만  마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‘푸르’다고 전이되어 표현됨 |

**상징법** 이해 범주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개인적 상징 | 개인 | 개인이 창작해 낸 상징적 표현. | 유치환의 ‘깃발’: 갈등하는 존재 | |
| 관습적 상징 | 사회 | 문화, 사회, 집단에서 통용되는 상징적 표현. | | 비둘기: 평화 |
| 원형적 상징 | 인류 |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적 표현 | | 물: 생명, 죽음 |

|  |  |
| --- | --- |
| 객관적 상관물 | 화자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, 간접적으로 다른 사물을 이용해 표현 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객관적 상관물 (꼭 화자와 정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) |
| 감정이입 |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.  예를 들어 새는 그냥 울고 있을 뿐이지만 **슬픈 화자**가 ‘슬피 운다’고 표현함 |

**연시조, 가사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강호사시가 | 맹사성 | 자연에 노닐면서 임금님 은혜를 생각함. 4계절. 총 4수 |
| 만흥 | 윤선도 |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임금님 은혜를 생각함 총 6수. |
| 어부사시사 | 자연에 노닐…기만 함. (정치현실에서 벗어남) 4계절. 총 24수 |
| 오우가 | 물, 돌, 소나무, 대나무, 달의 덕목을 칭찬하며 자기 친구로 삼음 |
| 도산십이곡 | 이황 | 자연에 은거하는 감흥(언지) + 학문수행의 길(언학) 총 12수 |
| 고산구곡가 | 이이 | 해주에 은거하면서 아홉 고개를 소재로 지음. 총 10수. |
| 한거십팔곡 | 권호문 | 벼슬살이 싫어, 자연에서 학문 좋아. 총 19수 |
| 비가 | 이정환 | 병자호란의 치욕, 잡혀간 왕자들에 대한 절망과 그리움. 총 10수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상춘곡 | 정극인 | 최초의 가사 작품. 봄의 흥취를 즐기고 술 마시는 내용(강호한정) |
| 면앙정가 | 송순 | 강호가도(자연+유교)의 전통 확립. 성산별곡에 영향 |
| 만분가 | 조위 | 자기를 선녀로 비유한 억울해요계열의 시초. 사미인곡에 영향 |
| 관동별곡 | 정철 | 강원도에 부임하여 관동8경을 유람한 내용  금강산에 올라서 선정을 다짐하고, 동해 바다로 내려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와 갈등함. 그러나 또 선정을 다짐함. |
| 사미인곡 | 유배당한 이후, 자신을 천상에서 추방당한 선녀에 빗대어 억울함 표현. 4계절 나타남. |
| 속미인곡 | 이번에는 추방당한 선녀와 다른 선녀의 대화가 나타남. 가사 문학의 최고봉이래. (멀리서 바라보는 ‘달’이 아니라 임에게 다가가는 ‘궂은비’가 되라는 표현에 주목.) |
| 성산별곡 | 은둔해서 책 읽고 풍류를 즐기는 내용. 상춘곡 -> 면앙정가 -> 성산별곡으로 은일 가사의 흐름 계승 |
| 선상탄 | 이인로 | 임진왜란에 출정하면서 배를 발명한 헌원씨, 일본 민족의 시조라는 서복 등을 원망하는 내용, 전투에 대한 다짐 |
| 누항사 | 은퇴하고 누추하게 살면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내용 |
| 규원가 | 허난설헌? | 집 밖에 싸돌아다니는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 |